



1
김 알렉산드르 막시모비치 선생.

김 알렉산드르 선생은 1911년에 원동변강
연해주 갈리닌구역 이만시 부근에 있는 아무
구브노보가 촌에서 중등급 농민 김막심의
차남으로 태어나셨다. 김 선생은 향토에서
초등을 마감하시고 그 향토 마을 초급공청단
체 책임서기로 1924년부터 1926년까지 일
하시었다. 농촌 청년들 속에서 공청회 사업으로
성적으로 조직 진행하여 청년들 속에 새로운 사회
주의 사상을 아주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새로
운 관공적 로동조직에 잘 끌기 위한 걸리에 연
해주 공청 동맹 중앙위원회는 김 선생을 추천그
라드시 공청 대학에 파견하여 1926년부터
1933년까지 공부를 하게 하였다. 공청 대학
을 마감한 김 선생은 원동 변강 울타지커스
덴코시 공청회에 파견되어 거기에서 원동 변

1

광·한인 중앙 신문 "선봉신문" 편집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1933년 부터 1937년 - 즉 일종에서
한인들을 강제어국할 때까지 일하시였다.

강제어국을 당하여 두르베크한에 도착한 김선생은
기본직업-신문사 일을 그만두고 포편을 잡고 일하게 되
였다. 하스켄즈주 중월척구역 볼로드브 골호즈에 있는
호중에서 처음에는 조어교원으로 계시다가 다음 1941
년 부터 1945년에 북한에 나가실 때까지 교장으로 일
하시였다. 귀속으로 북한에 도착한 김선생은 1945-1946
사이에는 먼저사령부 소련교문들의 홍역관으로, 다음
1946-1947년 사이에는 인민군 정치권관학교 교관으로
일하시였고 1947년 1950년 까지는 김일성종대로
어 감좌에서 상급교원으로 일하시였다. 1950년 동족
상잔이 시작되자 김대는 중국 만주로 후퇴하게 되니
당시 김선생은 급속한 후속을 걸쳐 소련에 귀환하였
다. 김선생은 소련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제대 후속
을 한 다음 가족을 따라 귀나흐한 크슬모르라 식에 가게
되였다. 여기에서 김선생은 1971년 까지 국가 공공
주택 제충에서 정성스럽게 일하시고 1971년에 국가
년급 보장을 받으면서 무대한 자식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1992년 까지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선거
하시였다. 김선생은 일제 제 대한 전용 메달, 조선
해방 메달, 소련군 30주년 메달, 조선인민군 군공 메달 등으로
축여 받았단다.

1991-2001. 하슈켄즈에서 장항봉